세 가지 시체놀이 중 택일

(아모스 2:1~16)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2.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욧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3.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5.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 시체놀이 중 택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세 가지 시체놀이 중 택일'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놀이입니다.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놀이 중에서도 시체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세 가지 시체놀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죽은 척하기, 시체 주무르기, 시체 되기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것 같아도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노숙자 사이에는 뭔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 가지 시체놀이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산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4월에 영국의 데일리메일 인터넷에 스테파니 리라는 여성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여성이 전 세계를 일주하면서 사진을 남겼는데 전부 죽은 척을 하고 찍었습니다. 보통 관광지에 가면 즐거운 모습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손가락으로 V를 만들기도 하고 양 팔을 벌리고 만세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관광명소에서 시체놀이를 했습니다.

대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서 사진을 보았더니 베드로 성당의 계단에서 넘어져서 죽은 것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장소마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은 모습도 다양합니다. 무려 8년 동안을 이렇게 세계를 여행하며 시체놀이를 하였습니다. 기자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삶은 얼마나 소중한가? 사진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을 보여주기 위해 독특한 포즈를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명승지에 가거나 유명인을 만났을 때에 사진을 찍고자 하는 이유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명성과 가치를 자신에게 덧입히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히 말해 나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포즈를 취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행동이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만 생각해볼 점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은 관광명소에서 시체놀이를 하였지만 신앙인은 삶에서 정말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앞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시체놀이를 통해 정말로 시체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놀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이고, 생산적이고, 의무적인 일이 아니라 단순히 기쁨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기쁨은 놀이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하는 일이 의무적이거나 당위적이거나 목적지향적이거나 성취지향적일지라도 결국 일을 하는 이유 또한 기쁨을 얻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지향하지 않는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기쁨과는 상관없이 생존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기쁨과의 연관성은 작용합니다. 기쁨과 만족이라는 목적지를 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조건이 바로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생에서 기쁨을 향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쁨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여정 전체가 기쁨을 향한 놀이의 과정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단 기쁨은 쉽고 가볍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문에서는 세 가지 시체놀이 중에 시체 주무르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는데 모압의 서너 가지 죄가 언급됩니다. 서너 가지 죄는 실제로 세 가지나 네 가지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충분할 만큼의 죄로 가득 찼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죄가 관영하고 있는 모압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다소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돔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었고 모압의 남쪽에 위치해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의 후손들이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취중에 딸이 동침하여 생겨난 민족입니다. 민족의 근원이 근친상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압의 죄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민과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면 모압이 선민에게 저지른 죄가 언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선민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이방민족으로써 저질러온 죄들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심판이 언급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상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당시 선민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누구나 납득할만한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체는 복음의 빛 아래에서 볼 때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더 이상 이루시려는 뜻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상 죽은 시체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시체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이 땅의 존재나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이 땅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금과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전혀 없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을 시도하는 것은 시체를 주무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사업을 해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어떤 부모는 자녀가 공무원이 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전혀 그러한 뜻이 없으십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를 관계하면서 시체를 주무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에 의정부에서 남편을 죽인 후에 시체를 고무통에 넣고 봉해서 집안에 놔두었다가 발각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 봉해두어도 그 악취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고 그 냄새를 이상하게 여긴 이웃들의 신고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일이 모든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존재하지 않는 뜻과 바람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집안에 시체를 두고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원하는 대로 바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없는 일이라면 시체를 주무르는 시체놀이에 불과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을 굳이 놀이로 표현한 이유는 기쁨을 추구한다는 점이 놀이의 사전적 의미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기쁨을 목표로 합니다. 기쁨이 주어지지 않으면 생각했던 지점에 도달했더라도 또 다른 지점을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기 때문에 채움을 위해 흡입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전히 채워진 후에는 더 이상 흡입하지 않습니다.

모압은 바로 이러한 시체 주무르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방민족이었던 모압에게 있어서 이러한 삶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시체놀이를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좋아할 때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낼 수 있고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뜻과 계획을 받아

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에게는 율법과 계명과 각종 율례를 통해 당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시체를 주무르는 놀이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율법과 계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직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삶에서는 율법과 계명이 지켜지게 되고 시체 주무르기는 중단됩니다.
그렇게 하늘로 마음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기쁨거리에 대해 죽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대해 시체 되기의 놀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놀이는 가짜나 허황된 행동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기쁨과 연관된 행동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과 분리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성전의 상번제에서 어린양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선민들 또한 모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뜻을 이룰 수도 없었고 선민의 나라가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배우자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배우자의 시체를 만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선민들은 대체 세상의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자 하나님을 등지고 시체를 주무르는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모압 민족들이 시체 주무르기 놀이를 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나님을 계시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민이 이들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에게 기쁨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시된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었다면 모든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한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기쁨이 표현되고 연장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써 모압과 똑같은 시체 주무르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시체 주무르기를 통해 기쁨을 지향하는 시체놀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 그 명확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선민들이 기쁨의 대상으로 믿게 된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6~8절을 보면 여러 가지 죄악상이 나타나는데 결국 돈이라는 하나의 대상으로 일축됩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최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 속에 지금 최고로 잘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사람들의 만 가지 죄악의 근원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다면 마음에서도 여유를 갖게 되

리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될수록 더 강한 마약을 찾게 되듯이 돈에 중독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탐냅니다.
6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의로움보다 우선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안 되는 의로움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여깁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신 한 켤레만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급은 다음절에서도 계속됩니다. 7절을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라고 하였습니다. 돈 없는 사람을 티끌처럼 업신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바알을 숭배하며 신전 창기에게 드나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이유도 결국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인륜조차 없어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시체를 방안에 두고 주무르는 죄악 된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민들에게는 돈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돈이라는 기쁨을 마음에 담고 행하는 모든 일이 시체를 주무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뜻에는 있지도 않은 말을 자녀에게 강요하고, 또 자녀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있지도 않은 일들을 부모와 함께 행합니다.
실제로 이 정도의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다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모든 곳에서 시체를 주무르는 시체놀이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마음을 연합시키는 시체 되기를 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앞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기쁨거리들에 대한 죽음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추구하고 두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선해야 할 일은 돈을 벌 방법을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돈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돈이 기쁨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죽는 시체 되기 놀이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돈 앞에서 죽은 척도 하지 말 것이고, 돈이 기쁨임을 인정해서 시체 주무르기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돈에 대해 시체가 됨으로써 하나님만 기쁨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부활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스테파니 리라는 여성이 각종 명승지에 가서 죽은 척하며 사진을 찍었지만 우리의 삶은 죽은 척 하는 시체놀이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시체 되는 시체놀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모셔야 하고, 그럴 때에 말과 행동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하늘에 매달린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죽은 척하는 시체놀이도, 시체 주무르기 시체놀이도 아닌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시체 되기 시체놀이를 통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의 세계에 도달하여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들만 열매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